

가족 3명 한달간 통화 10여 통...철저한 고립생활

마지막까지 외로웠던 조유나양 가족

광주 조유나양(10·5학년) 일가족은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족 3명의 마지막 한 달(5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신 전화는 한 명당 5통 안팎이었으며 아마도 은행과 완도 펜션을 제외하면 일가족 3명이 주고받은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장례 절차 동안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얼굴을 비춘 이도 없었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남부경찰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월 한 달간 조양 가족 3명의 휴대전화 송·발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각 발신 전화는 5건 안팎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3명이 저마다 걸었던 5통 안팎의 전화는 대부분 가족 3명이 주고받은 전화였다. 수신된 전화 역시 비슷한 규모였다.

조양 부모의 경우 가족 간 전화를 제외하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운데 7일을 머문 완도군 신진면 펜션 관계자와의 통화 한두 통, 그리고 은행서 걸려온 전화 두 통이 사실상 전부였다고 한다. 조양 부모는

그마저도 대부분 가족간 주고받아 주변인들과 왕래도 없이 단절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지 않아 가족 유해 화장장에 입당 안치

아빠 코인 손실... '루나' 투자는 안해 엄마 공황 장애·불면증 진단 복합적 사유 겹쳐 극단 선택한 듯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 있었지만 지난 5월 통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양 역시 부모와의 통화, 친구와의 통화 등 지난 5월 주고받은 전화는 채 10통이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24일 조양 일가족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실종 경보'를 올리기 전후, 사건 초기 이어진 탐문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 외부와 단절

된 흔적이 엿보였다. 탐문 수사에 나선 복수의 경찰은 형제·자매 등을 접촉한 뒤 "가족끼리만 어울려 산 것 같다. 형제자매 등 가까운 사람과는 연을 끊다시피 전화도 왕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실종 경보 발령 초기 TV 등 언론에 조유나양 사진이 줄곧 나왔지만, 일가족이 살았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변 미용실, 교회, 학원, 마트 등 5~6곳 관계자는 한결같이 "처음 보는 아이다. 기자들이 오기 전엔 이 동네에 산 줄도 몰랐다"고 했다.

조양 가족의 마지막 길도 외로웠다. 조양 가족의 유해는 부검을 마치고 지난 30일 광주시 남구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튿날 곧바로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발인부터 화장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은 물론 학교·교육청 관계자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경찰과 장례식장 관계자는 "조양 가족이 주변에 피해를 준 것은 딱히 없지만, 실종 사건이 떠들썩하게 알려지면서 얼굴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현재 조양 가족의 유해는 화장장에 한 달간 임시 안치됐으며, 이 기간 유가족이 장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유골은 인근 동산에 뿌려지게 된다.

주말 사이 경찰은 조양 부모가 남편 조모(36)씨 명의로 지난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 투자'를 했다가 2000여만원 손해를 본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해 3월 10여개 가상화폐에 총 1억 3000여만원을 투자했으며, 3개월 뒤인 6월 1억 1000여만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조양 부인은 지난 5월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루나 코인'에는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루나 코인은 지난 5월 1주일 사이 97%가 폭락했던 가상화폐로,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조양 가족이 사망 직전 루나 코인에 투자해 큰 실패를 겪은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은 코인 투자 내역이 없다. 조양 부모가 인터넷으로 '루나 코인'을 검색한 것도 현 상환만 놓고 보면, 대폭락 상황이 이슈가 되니까 궁금해서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양 모친 이모(35)씨가 광주 지역의 병원에서 지난 4·5월 두 차례에 걸쳐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여전히 조양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극단 선택의 원인은 딱 잘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곤란뿐 아니라 조양 모친의 공황장애 등 여러 사유가 겹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조양 부모가 지난해 여름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매일 90여만원에 이르는 자동차 임차비(리스)와 집 월세 35만원(보증금 1000만원)을 꼬박꼬박 내왔던 점을 거론하며 일가족이 마지막까지 버티다 결국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다. 대출금과 카드빚 등 1억 5000만원의 기존 채무에 더해 관리비까지 너달 치가 밀린 상황에서 가족 질병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휴대전화 포렌식·수면제 처방 내역 등 조사 조양 부친 휴대전화 못찾아 동기 파악 차질

경찰 남은 수사는

변속기 P단 설정된 이유 주목 이달 말 부검 결과 등 나올 듯

완도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조유나양 일가족의 사망 원인, 전후 사정을 밝히는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동차 감시, 수면제 등 처방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조양 모친과 조양의 휴대전화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전자범죄학 수사) 작업을 진행, 통화·문자 메시지·카톡 대화 내역을 복원 및 분석하고 있다.

이들 휴대전화는 조양 모친의 핸드백에서 발견됐다.

다만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양 부친의 휴대전화는 차량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 경찰도 의문을 품고 있다. 부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동기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부친의 휴대전화가 바다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차량 발견 당시 변속기가 P(주차)단으로 설

정돼 있던 이유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변속기가 D(주행)단이었을 경우 직접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P단에 있을 경우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조양 부친이 해상 추락 직후 직접 변속기를 P단으로 조작했을 경우, 물 속에서 외부 충격을 받아 변속기가 바뀌었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해상 추락 차량의 변속기가 P단일 경우 사고사를 위장한 보험 사기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를 당한 본인이 사망한데다 정작 보험금을 받을 친지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보면 사고사 위장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양 가족의 병원 진료·처방 내역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 조양 모친과 조양의 휴대전화 통화·문자·카톡 내역 등 분석 결과는 2주 안팎으로 나올 계획이다. 다만 한 달 가까이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만큼 복원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달 말께는 조양 가족 3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 결과와 차량 고장·사고 여부 등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 '한달 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2일 밤 광주시 제2순환도로 우암동 진출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7건을 적발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7월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전 대표 2명 등 추가 기소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전 경영진 등을 추가 기소하고 붕괴 사고 직접 책임을 묻는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장운영)는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과 권순호 전 대표이사,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 등 모두 7명(법인 1명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순호 대표이사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명단에 빠져있었으나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낸 뒤 입건, 기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인 가형건설산업, 감리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허부충 동바리(지시거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인 대표이사들은 현장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

켜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공정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붕괴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총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위·감독기관의 단속 정보를 시공사 측에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 수사를 받던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1타경 4779	1	광양시 진월면 월일리 578 641㎡	전	22,232,9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포함	
		동소 617 1008㎡	전	22,232,900		
	8	광양시 진월면 월일리 618-1 3144㎡ [공유자속석주2/9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대	56,201,200	매각제외제외지권이었음, 수목포함	
		광양시 진월면 월일리 618-1 3144㎡ [공유자속석주2/9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대	56,201,200		
	9	광양시 진월면 월일리 712-4 1173.3㎡ [공유자속석주2/9지분, 수목포함]	대	27,278,600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광양시 진월면 월일리 산85 67438㎡ [공유자속석주2/9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임야	52,451,700	연고이상분묘소재로분묘지기전성립여지있음	
	10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2383 1078㎡	전	33,01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제시외물건포함	
		동소 2707 1402㎡ [제외외수목 유자나무 약 30주 [물건번호1: 연고이상분묘소재로분묘지기전성립여지있음]	전	33,018,000		
	2021타경 6256	1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817 258㎡	전	8,333,200	일괄매각,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02-3 84㎡ [공유자장효자360/80325, 공유자장영미, 김민근240/80325, 공유자장범준, 김하연, 김지연80/80325각지분 전부] 제외외수목 아왜나무 1식 [공유자장효자360/80325, 공유자장영미, 김민근240/80325지분]	전	8,333,200	
2021타경 6807	1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29-5 25835㎡	임야	188,595,500	태양광설비매각제외	
		여수시 삼암동 291 2522㎡	답	242,1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6732	1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1860-1 338㎡	창고시설	25,653,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860-1 단층자본묘소재로분묘지기전성립여지있음	답	25,653,000		
	1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726 2798㎡	답	38,891,38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29 694㎡ [물건번호1: 공유자속갈순42 8/1065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전	38,891,380		
2022타경 50847	1	사용본거지: 순천시 주암면 한동길 213 등 복번호: 97오9289 차령: 포터11 연식: 2016 [제3차간수정예계본고]	자동차	10,000,000	보관: 순천시서면 일괄매각568-1, 번호판없음	
		광양시 관양읍 용원리 429-2 4134㎡	장중지	449,068,000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수목포함, 컨테이너4동매각제외	
2021타경 29	1	동소 421-1 2394㎡ [물건번호1: 공유자이원동소2/3지분, 연고이상분묘소재로분묘지기전성립여지있음]	장중지	449,068,000		
		광양시 옥곡면 신곡리 1507-84 775㎡	주유소용지	803,530,850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기계기구포함 [소재물55점제외]	
2021타경 6553	1	광양시 옥곡면 신곡산1길 7 1층 [사무실] 67.50㎡ 2층 [사무실및창고, 현충: 주철] 63.6㎡ 단층개노316㎡ 부속건물 단층창고 7.2㎡ 제시외 창고 등 205㎡, 기계기구목록	주유소용지	803,530,850		
		광양시 옥곡면 신곡리 1507-119 733㎡	주유소용지			